

미술사에서 살아남은 5퍼센트의

주인공의 85퍼센트를 차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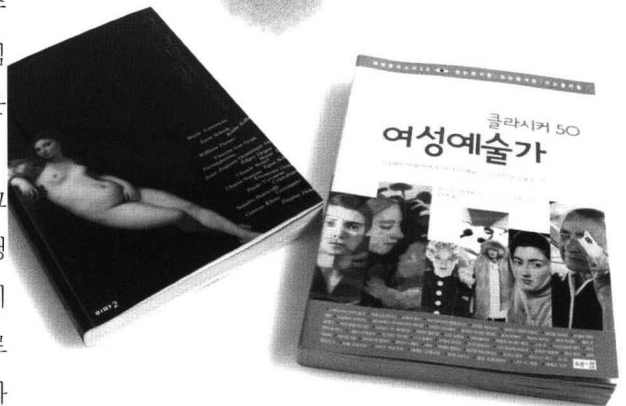
여성 화가와  
여성 모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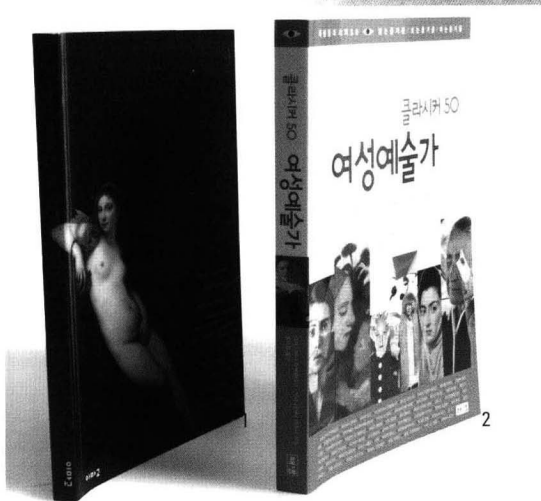
예술은 천사와 같다. 천사처럼 성성이 없다는 의미다. 화가 조영남에 따르면 예술은 두뇌로 하는 가장 고급한 모험이다. 끊임없는 창조력으로 무언가에 도전하는 열정이 있는 까닭일 게다. 그런데 천사처럼 성이 없어 남녀 누구나 뛰어 들 수 있다는 이 즐거운 모험에 과감히 뛰어 들었다 온갖 비난과 괘시를 받았던 여인들이 있다. 여성 예술가들이다. 씩씩하게도 거시사에 영향을 받은 미술사 혹은 예술사에서 여성의 존재는 무시되거나 소극적으로 소개되기 일쑤였다. 부계사회의 질서 속에서 언술 행위인 역사기술이 남성적 언어로 치환된 결과다.

“좋아하는 화가가 누구냐?”는 질문에 “다빈치요, 로댕이요, 고흐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만 까미유 끌로델, 프리다 칼로다 말하는 이들은 드물다. 그나마 이 두 사람은 영화나 책으로 주목받게 된 긍정적인 케이스지만 그 외 남성 화가들 속에서 전체 5퍼센트 이내의 숫자로 확인된 여성 화가들 이외에 또 존재했을 법한 여성 화가, 그들의 존재는 온데간데 없다.

《여성 예술가》는 그 5퍼센트 안에 속하는 화가들 혹은 5퍼센트에 포함되지 못하고 변방으로 사라진 여성 예술가들을 찾아주는 책이다. 설치 미술가나 사진 작가도 있으나 역시 중심축은 회화, 조각 예술가다. 즉 압축된 여성 미술사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 책은 그들의 업적을 무조건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시종일관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각 시대별 여성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 활동, 작품의 특징 등을 정리하고 말미에 작품 평가도 함께 실어 숨겨졌던 예술가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50명의 여성 예술가들은 때론 상처극복을 위해, 때론 자신의 관심 영역을 넓혀가면서 녹록찮은 환경에서도 붓을 잡는다. 소외, 배제돼 서운했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600년대, 유혈이 낭자한 모티브 속에 복수하는 여성의 모습을 그려냈던 아르테미시아는 예술을 치유의 도구로 삼았다. “나는 나를 성폭행한 자를 죽인다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다”는 말로 캔버스에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었음을 밝힌 그녀. 그 시기 이탈리아의 미술 평론가 로베르토 롱기는 아르테미시아에게 “혼자서 이런 그림을 그리다니 무서운 여자다”라는 말과 함께 회화에 있어 채색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1 《나를 사로잡은 그녀, 그녀들》 함정임 지음 | 이마고 | 208쪽 | 값 12,000원  
 2 《클라시커50 여성예술가》 크리스티나 하베를리크·이라 디아나 마초니 지음  
 정미희 옮김 | 해냄 | 272쪽 | 값 15,000원

유일한 여성화가란 찬사를 덧붙였지만 그녀는 카라바조와 렘브란트만큼 주목받진 못했다. 그의 그림은 간단히 말해 복수풍 회화다. 주인공 여성은 남자를 칼로 찔러죽이고, 몸에 못질을 해댄다. 훗날 평론가들은 잔혹한 장면들 속엔 강한 명암대비를 통한 극단적 사실주의의 모체가 숨겨져 있음을 점차 밝혀냈는데 그녀는 이로써 카라바조의 유일한 여성제자란 이름을 버리고 아르테미시아란 이름으로 직립하게 된다.

연인의 유명세에 가려져 외려 사후에 그 예술적 업적을 인정받은 화가. 로맹의 연인 까미유 끌로델이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생산해 내기도 했으나 연인이었던 로맹의 작품창작의 원천이기도 했다. <입맞춤> <영원한 봄> <영원한 우상> 등은 모두 그녀를 모델로 한 작품들이다. 어느새 연인이며 동반자며 창작의 원천이었던 까미유는 로맹의 경쟁자로 발돋움할 만큼 실력 있는 조각가로 성장한다. 그러나 예술적으로 동등한 입장을 요구한 그녀와는 다르게 로맹은 그녀를 헐뜯는 적수가 돼버린다. 하룻밤 사이에 비평가와 로맹에게 조롱당한 신세가 된 이 여인은 12마리의 고양이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작업에만 몰두한다. 그의 작품은 평론가들에게 '놀라운 솜씨로 인체를 그려내는 초상화가', '탁월한 대리석 작가'라는 평을 받았으나 당시 사람들은 물론이고 후세의 사람들에게까지 로맹의 그림자, 로맹과 화단에게 배신당한 여인 등으로 알려져 그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지 못한 채 남아 있다.

각각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치 개성이 강한 여성작가들의 작품이 펼쳐지는 가운데 환경 관련 그림책에서 본 듯한 그림이 유난히 눈에 띈다.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 인물화나 풍경화 조각상이 수적으로 많았을 1600년대에 지금의 권혁도, 이태수 씨처럼 세밀화를 그린 작가다. 현재 독일에서 그녀의 작품을 가볍게 미화한 복사본이 500DM(도이치 마르크, 독일의 화폐단위) 정도로 팔린다 하는데 모사품이 거래되는 상황에서도 그녀의 명성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처럼 과학자이면서 화가였다. 여성에겐 대학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시절이라 자연과학을 전공하진 못하고 동판화 제작법을 배워 흥미를 가졌던 곤충의 세계를 동판 위에 그려냈던 마리아. 그녀의 이런 취미는 당시로선 악습으로 평가됐다. 당시 세계는 그녀를 '악마의 세계에 속한 자'로 손가락

질했으나 애벌레에서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곤충의 변천을 세밀화 기록으로 남긴 그의 작업들은 미술분야뿐 아니라 과학계에서까지 중요한 자료로 남겨진다. 과학자면서 모험가적 정신을 가진 화가로서 그는 과학과 미술 사이의 경계를 독특하게 허물었다는 업적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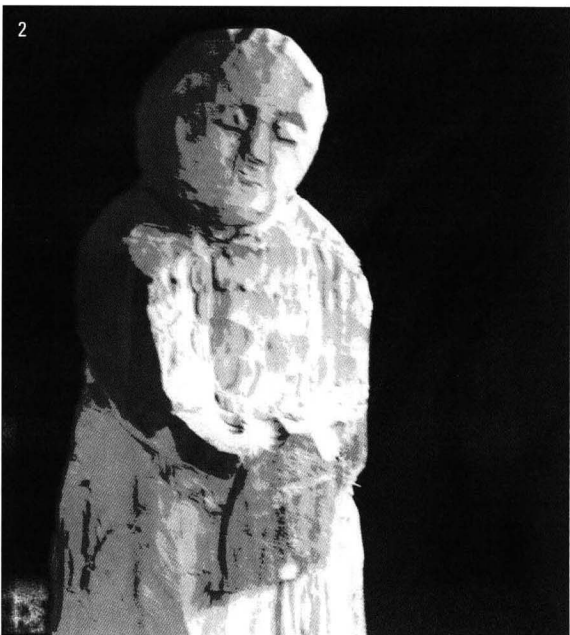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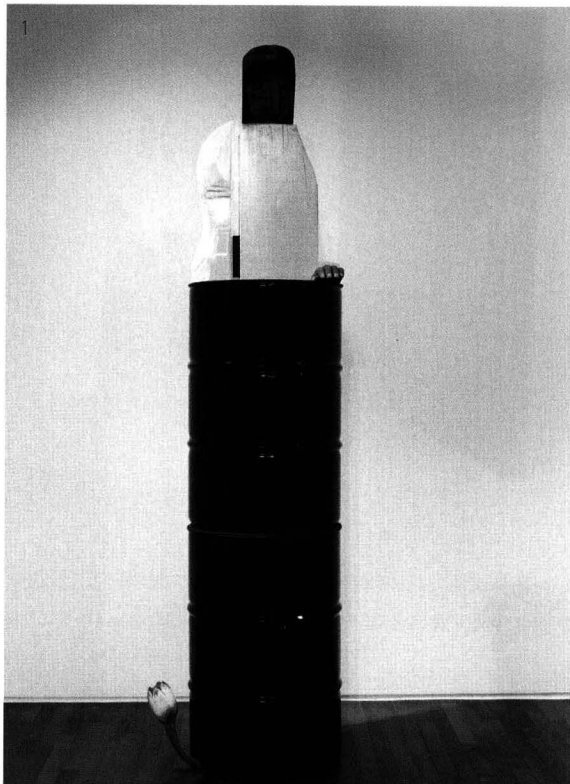
《나를 사로잡은 그녀들》은 전 세계 그림소재의 85퍼센트를 차지한다는 여성들과 소설가 함정임 씨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 흔적이다. 즉 '함정임의 미술 속 여자이야기'라고 이해하면 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녀들은 화가들이 아니라 사갈의 그녀, 몽크의 그녀, 마그리트의 그녀로 남은 이들이라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함씨는 캔버스에 갇혀 있는 그녀들에게도 힘이 있다고 말한다. 누군가의 그림 속에서 "미의 이름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의미를 던지며, 반쪽 여자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 부수적인 예술가가 아니라 주체적인 예술가임을 호소한 문제적 개인들"이라 말해주며 함씨가 그들을 살려내니 그 아쉬움은 곧 희석된다. 오랜 시간 동안 유럽을 여행하며 미술관, 박물관을 찾아 그녀들과 대화를, 사랑을 나눈 함씨의 경험담에 귀 기울여보자.

소설가 함씨, 그녀를 사로잡은 주인공들 중 어느 해 처절했던 봄날 그녀의 모습과 울음을 그대로 담은 고희의 <슬픔> 속 여인을 만나보자. 여인은 벌거벗은 채로 두 무릎을 세워 그 사이에 얼굴을 푹 파묻고 있다. 어떤 슬픔인지는 모르겠으나 앙상한 나뭇가지에 드문드문 피어오르는 꽃을 보니 바야흐로 때는 봄이고 봄이란 계절 탓에 그녀의 슬픔은 배가된다. 이 여인을 보는 함씨는 이제 서른세 살 봄 감감한 나락으로 떨어졌었던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다. 하루 종일 벚꽃잎 허공에 난분분하던 4월, 사랑을 잃어버린 함씨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린 그의 남편으로 이미 고인이 된 소설가 김소진 씨의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을 추측할 수 있다. 고희의 <슬픔>은 이렇듯 처연한 미로써 함씨의 마음을 움직인다.

두 젊은 여자가 맞잡은 손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검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온통 푸른 해변을 달려가는 모습. 그녀들의 육감적인 몸매와 질주본능이 보는 이의 혼을 사로잡는다. 피카소의 <해변을 달리는 두 여자>. 이 그림은 액자화된 평면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역동적인 힘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 그림을 보는 함씨는 그녀들처럼 쾌속질주를 해보고 싶

1 윤석남 (연, 혼합재료, 2003)

2 조영남 (나의 어머니, 나무조각, 2004)





3

3 박영숙 (여성화폐작업, 사진합성)

4 김명희 (복숭아를 든 작은 뮤즈, 칠판에 오일파스텔, 2002)



다는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녀들을 달리게 만든 강렬한 그 무엇을 내 안에서 찾아내고 싶다면 생의 다이내믹한 에너지를 절실히 드러내고 싶어한다. 적극적인 두 여성의 힘이 함씨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고 있다.

이 밖에도 최초의 여성화가인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와 프리다 칼로 등의 여성예술가와 그들의 작품 속 그녀들이 함씨의 외사랑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작가 나혜석, 이정민, 김관호의 작품들도 있으니 그림으로 굳어버린 그녀들, 때론 남성화가에 의해 그려진 그녀들이라 해서 쉽게 여길 일은 아니다.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창조적 모험에 뛰어든 여성들, 전 세계 예술가들의 창조적 모험에 참여해 모델이 되어준 여성들, 《여성예술가》와 《나를 사로잡은 그녀, 그녀들》은 여성미술사와 예술사가 담아내야 할 역사 속의 인물들을 10퍼센트 더 재발견해 낸다. 또한 여성의, 남성의 언어도 아닌 인간과 예술의 언어로 끊임없이 창조적인 모험을 감행했던 남은 인물들을 찾아내자는 숙제도 남겨준다.

책으로만 여성들의 힘을 느끼기에 서운하다면 경기도 용인 마북리 한국미술관으로 향해보라. 10년 전 설치미술가 이불 씨의 〈몸을 묶은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퍼포먼스〉로 화제를 모았던 '여성, 그 다름과 힘' 전시가 10년 만에 다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여성적인 미술'로 여성 주제의 미술을 폄하해 온 왜곡된 미술계 풍토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기획된 전시로 여성작가에 의한 여성미술제가 아니라 여성성과 여성문제를 주체화한 모든 예술을 소개하는 여성미술제다. 전시에선 한국 최초의 여성화가로 알려진 나혜석과 어머니와 여성의 모습을 나무로 깎는 윤석남, 여성을 모델로 한 화폐사진을 선보이는 사진작가 박영숙 씨 등의 작품 등 한국의 대표 여성작가 20여 명의 작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초판**

취재 | 김창연 기자 · 사진제공 | 한국미술관

〈여성, 그 다름과 힘-그리고 10년〉

- 장소 경기도 용인 마북리 한국미술관
- 시간 2004. 5. 28. ~ 8. 27.
- 문의 031-283-6418
- 주최 한국미술관

